

전문체육 지원 확대

내년 체육부 예산 증액
국대 수당 하루 8만원으로 ↑
훈련 시설 확충 등 처우 개선
전국민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활체육 참여환경도 강화

2023년 체육 부문 예산이 증액돼 전문체육 지원과 국민의 생활 체육 환경을 개선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예산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대륙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체육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원→8만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과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원, 31억원 증가)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순추천 다목적체육관 신규 건립 추진(6억원), 동계종목 훈련센터 신규 운영(31억원)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31억원)한다.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운영을 지원(14억원)하는 등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환경도 강화한다.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원, 5억원 증가), 노령층 선호가 높은 종목시설-건강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6억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601억원, 34억원 증가)한다.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와 이용권 지원금액은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인원은 8만6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늘린다.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와 이용권의 지원대상(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지원금(2102억원, 221억원 증가)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대상 예술활동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생활체육 저변확산과 스포츠산업 경쟁력도 제고한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승강제리그 확대를 통해 풀뿌리 체육 활성화 및 생활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산업 융자 창업 기업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지난 22일부터 24일간 열린 제2회 체육영재선발대회 예선에 나선 초·중학생들. (사진=전북체육회 제공)

체육영재선발 122명 예선 통과... 본선 진출

내달 7일 결선... 최종 진출자는 40명

체육영재선발대회 예선을 통과한 122명의 체육 인재들이 결선 진출을 놓고 다시 선의 경쟁을 펼친다. 30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간 펼쳐진 제2회 체육영재선발대회 예선을 통과한 초·중학생(초3년~중1년)은 122명이다. 당초 1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동점자들이 발생해 본선 진출자들이 다소 늘었다. 기초 및 운동체력 측정이 이뤄진 예선 통과자들은 31일 임실 다목적체육관에서 본선을 치르게 되는 데, 운동체력과 신경반응, 운동협응

능력 등을 측정하게 된다. 결선은 다음달 7일 펼쳐지며, 최종 진출자는 40명이다. 결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체육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우승자와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는 추가 장학금도 주어진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회가 순항하고 있다"며 "숨은 체육 인재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영재선발대회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

대한체육회, 학생들 주중대회 금지 재검토 방침 '지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권이 보장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육인 대상 교육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이며, 학생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다만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이에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고, 29일 문체부에서는 교육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문체부, 교육부와 함께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권영준, 펜싱 국대 선발전대회 우승

남 에페 개인전서 금메달 획득

익산시청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가 제27회 김창환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자격에 한 발짝 다가섰다. 권영준 선수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제27회 김창환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결 국가대표선수 선발전대회에 출전해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는 이번 김창환배를 비롯해 2월에 열린 종목별오픈대회, 8월 초에 열린 대통령배, 9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등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2월 종목별오픈대회 3위,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권영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 더욱 가까워졌다. 정현을 시장은 "시의 명예를 드높인 권영준 선수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펜싱부 소속 권영준 선수는 올해 5월 하이랜타임 월드컵과 8월 서울아



시아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현재 익산시 흥보대사로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체육진흥공단·KPGA 9홀 프로·유소년 팀전 개최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9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구자철 KPGA 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육진흥공단과 KPGA는 골프대중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상호간 교류 활성화 및 인력 협조, 지역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자체와의 협력 증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공단이 보유한 에클라안 골프장들을 활용해 KPGA 프로와 지역 유소년 꿈나무가 팀을 구성해 치르는 국내 최초 9홀 대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앞으로 골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골프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공단은 골프대중화를 목적으로 쓰레기 매립지, 폐광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에클라안을 전국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제7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2년 9월 2일(금) 오후 6시~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